

제목: 남과 비교치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이뤄야 한다

Title: Do Not Compare Yourself with Others, but Fulfill the Work Entrusted to You

누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며, 이미 천국 백성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and repents becomes a child of God.

This means that the life of faith has begun. It does not mean that the person has already been confirmed as a citizen of heaven.

열심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마치면 알곡으로 판정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면 쭉정이가 되어 지옥 불에 태워집니다.

If a person finishes his life by diligently obeying and repenting, he is judged as true grain and enters heaven.

But if he ends with only formal faith, he becomes chaff and is burned in the fire of hell.

이것이 성경입니다.

This is the Bible.

많은 사례와 진리를 설명하다 보니 성경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간 교리가 성경 위에 올라갔습니다.

The Bible became thick because it explains many examples and truths.

But human doctrine has risen above the Bible.

저들은 교회에 한 번 나가면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They say that once a person attends church, he has become a

citizen of heaven.

Because of this, church members' faith does not grow.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만해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The longer some people attend church, the prouder they become.
They cannot forgive others, cannot love, and become selfish.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를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This happens because Satan takes control of their hearts.
Satan attacks him intensely so that he cannot go to heaven.

하나님은 그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God disciplines him in order to turn him back from the path of destruction.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을 배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주님이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When a person first believes in Jesus, the Lord guards and protects him.

But if he does not learn obedience and follows the world, the Lord strikes him with the rod.

예수를 믿는데도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며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삶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Even though he believes in Jesus, he becomes sick, has accidents, and faces many problems.

The peace of his life disappears.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올바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To be restored, he must read the Bible and listen to sound preaching.

He must return to a life of repentance and obedience.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The purpose of beginning the life of faith is to learn the Word of God and obey it.

죄를 버리고 이웃을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We must be trained to abandon sin, forgive our neighbors, and love one another.

교회에 다니지만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쪽정이 믿음으로 끝납니다.

If a person attends church but does not live a life of repentance, his faith ends as chaff.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When we believe in Jesus, God gives different talents to each person.

어떤 자는 재능이 많고, 어떤 자는 재능이 적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면 동일한 구원과 상급을 받습니다.

Some people have many abilities, and some have fewer abilities. But if they are faithful, they receive the same salvation and reward.

많은 능력을 받은 자는 많은 의무를 가지고, 적은 능력을 받은 자는 적은 의무를 가집니다.

The one who has received much ability has many duties, and the one who has received little ability has fewer duties.

많은 능력을 받은 자가 자기 의무의 절반만 이루면, 작은 능력을 받고 다 이룬 자보다 못합니다.

If a person who received much ability fulfills only half of his duty, he is worse than the person who received little ability and fulfilled all of it.

사람의 눈에는 절반을 이룬 자가 작은 능력을 받고 다 이룬 자보다 열 배 이상 더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절반을 이룬 자와 전부를 이룬 자로 구분됩니다.

In human eyes, the one who fulfilled half may seem to have done ten times more than the one who had little ability and completed all.

But in the Lord's eyes, one fulfilled only half, and the other fulfilled all.

큰 호박이 절반 썩어 있는 것보다 작은 대추 하나가 토실토실하면 주인이 그것을 더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절반 썩은 호박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The owner is more pleased with one small, healthy jujube than with a large pumpkin that is half rotten.

But in people's eyes, the half-rotten pumpkin may look greater.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Do not compare yourself with others.

Being faithful to the work entrusted to you is what pleases the Lord.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To gain talents does not mean simply earning much money.

주님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It means serving the Lord with the ability, health, and possessions He has given you.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용서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It means helping those weaker than yourself, forgiving your neighbors, and doing good.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이 높을수록 남을 지배하려 합니다.

Because people do not understand the Lord's will, the higher their position is, the more they try to rule over others.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Our lives were created for the glory of the Lord.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If a person lives for the glory of the flesh, everything disappears.
In the end, even his life is taken by Satan.

“<마태복음 25:24-25>: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Matthew 25:24-25>: Then the man who had received one bag of
gold came. ‘Master,’ he said,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harvesting where you have not sown and gathering where you
have not scattered seed. So I was afraid and went out and hid
your gold in the ground. See, here is what belongs to you.’”

이런 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Such people claim that because God is almighty, He will do
everything by Himself.

인간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y say that human effort is not needed at all.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y say God will save those He wants to save, bless those He
wants to bless, and heal those He wants to heal, so human beings
do not need to make any effort.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This kind of thought comes from Satan.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힘쓰고 애써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Although we are lacking and weak, the Lord wants us to strive, make effort, forgive one another, and love one another.

자기 고집대로 살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알아서 다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They live according to their own stubbornness and do not repent, but only attend church.

Yet they believe the Lord will save everyone automatically.

이런 자들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 두는 자입니다.

Such people are like the one who received one talent and buried it in the ground.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능력과 재물을 오직 세상 것만 위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Burying the talent received from the Lord means using one's life, ability, and possessions only for the things of the world.

“<누가복음 19:20-21>: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Luke 19:20-21>: Then another servant came and said, ‘Sir, here is your mina; I have kept it laid away in a piece of cloth.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a hard man. You take out what you did not put in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비슷한 말씀입니다.

This is a similar word.

한 므나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여 수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저 수건에 싸서 둔 것입니다.

The person who received one mina should have used it and gained profit, but he simply wrapped it in a cloth and kept it.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엄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His thought was that because God is strict, he might be rebuked if he made a mistake.

So he chose to do nothing and simply leave it as it was.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This is a very wrong thought.

Even if we stumble, we must diligently run the way of faith.

교회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며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We must receive church duties, serve in various ways, and move diligently.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When we work diligently for the Lord, we may make mistakes.

But do not worry.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Whenever we make mistakes, we should repent, forgive one another, and be reconciled.

실수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가 됩니다.

Doing nothing because of fear of mistakes is neglect of duty.

It becomes a sin that causes a person to be rejected by the Lord.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It is abandoning the purpose for which the Lord saved us.

주님의 뜻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Those who abandon the will of the Lord cannot go to heaven.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The Lord does not demand perfection from us.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He simply wants us to obey with all our strength.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집니다.

When we finish life on this earth and enter heaven, our life
becomes complete.

이 땅의 삶은 모두가 실수하며 회개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In this earthly life, everyone must go forward while making
mistakes and repenting.

“<누가복음 19:24-26>: 곁에 선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Luke 19:24-26>: Then he said to those standing by, ‘Take his
mina away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en minas.’
‘Sir,’ they said, ‘he already has ten!’ He replied, ‘I tell you that to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but as for the one who has
nothing,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away.’”

믿음과 지식과 능력이 적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Do you do nothing because your faith, knowledge, and ability are
small?

그렇다면 머지않아 이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If so, before long even what you already have will be taken away.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넘어갑니다.

It will be given to the one who works diligently.

열심히 일해 풍족해진 자는 보너스를 받아 더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The one who works diligently and becomes fruitful receives a bonus and becomes even more fruitful.

순종하기 싫은 자는 한없이 약해지다가 마지막에는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The one who does not want to obey becomes endlessly weak and, in the end, even his trace disappears.

그러나 순종하고 회개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But the one who obeys, repents, and strives to keep faith becomes stronger and stronger.

He lives with spiritual authority in the world and then goes to heaven.

“<누가복음 16: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Luke 16:10>: Whoever can be trusted with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and whoever is dishonest with very little will also be dishonest with much.”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The one who is faithful in very small things is also faithful in very great things.

이 땅의 것은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Everything on this earth is small.

But heaven is great and eternal.

천국에 가기 위해 이 땅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는 지극히 큰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The one who is faithful to the Lord's Word with the small things of this earth in order to go to heaven will receive the exceedingly great kingdom of heaven.

